

민중의 기억 품은 천불천탑... 새로운 대한민국 희망

황순철 화백 제23회 개인전 '운주사 천불천탑 와불이 일어난다'

서예와 회화를 아우른 독보적 예술 세계를 구축해 온 황순철 화백이 서울에서 23번째 개인전을 연다.

이번 개인전에서는 그가 10여년간 현장 작업을 통해 집요하게 탐구해 온 '운주사 천불천탑' 시리즈를 중심으로 작품 40여점이 전시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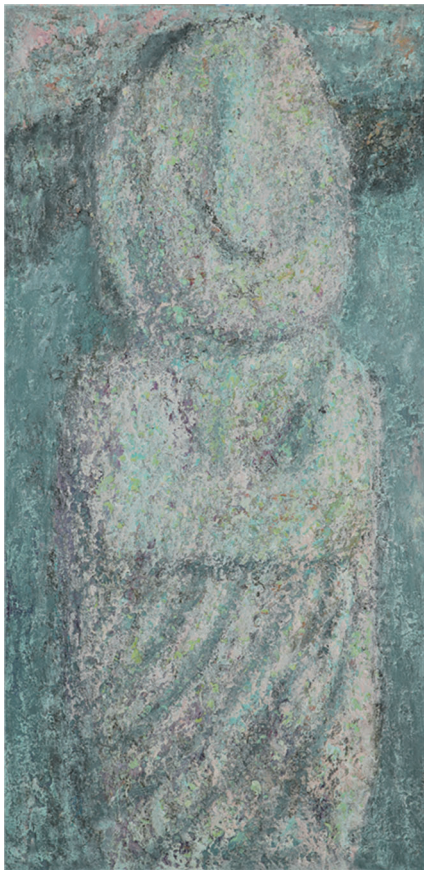
21일부터 27일까지 서울 종로구 인사이트센터 3층 G&J갤러리에서 열리는 '운주사 천불천탑 와불이 일어난다' 전시는 황 화백의 운주사 작업을 엿볼 기회다. 지난해 발발한 12·3 계엄으로 원래 계획한 전시를 전면 수정하게 됐다고 밝힌 작가는 운주사에 와불이 일어나며 미륵세상이 온다는 말이 있듯이 새롭게 서는 대한민국을 바라며 작업을 펼쳐왔다고 말한다.

황 화백에게 운주사는 단순한 장소가 아니라 예술적 깨달음의 공간이었다. 지난 2013년 전라남도 담양에서 대화를 그

21~26일 서울 G&J갤러리서
10여년간 작업한 40여점 선배
"12·3 비상계엄으로 전면 수정"
미완의 아름다움 담아낸 석불



황순철 작 '눈보라 몰아치는 정적의 감실불'.



황순철 작 '코보할랑'.

리던 중 문득 떠오른 운주사의 향아리탑을 시작으로, 수십 기의 석불과 석탑을 화폭에 담기 시작했다.

그의 전시작들에는 목이 잘린 석불, 표정이 사라진 바보 석불, 누워 있는 와불 등 유독 미완성의 돌부처들이 많이 등장한다. 이는 5·18 광주 상제, 민중의 아픔이 깃든 것으로 단순히 풍경화가 아닌 자기 성찰의 기록을 투영한 것이다.

"바보는 나였다. 자신을 지키지 못한 바보. 나를 그렸다."

황 화백의 말에서 알 수 있듯이 '운주사 천불천탑' 시리즈는 민족사에 대한 예술적 증언으로도 보인다.

작가는 이번 전시를 통해 회화적 질감을 강조한 나이프 기법으로 마치 미장이가 흙을 다루듯, 돌의 질감을 표현하기 위해 수백 번 나이프를 덧대었다고 한다. 오돌도돌하고 생생한 돌의 표면을 구현한 그림들은 관객들에게 촉각적 몰입감을 극대화한다.

어느 순간 작위적 태도를 버리고 무위(無爲)의 상태에서 표출되는 미완의 아름다움

다음에 매료된 그는 완성도를 향한 집념 속에서도 "불완전함이야말로 진정한 아름다움"이라는 예술적 자각에 이른다. 이는 단지 한 화가의 철학을 넘어서, 인간의 본질과 삶의 진실을 관통하는 통찰이기도 하다.

"석불이 곧 나였다."

이번에 전시하는 운주사 천불천탑 작품들은 모두 황 화백의 숙명적인 결과물들이다. 미완이어서 더 거룩하고 아름다운 운주사의 돌부처들은 '오늘날 사람의 형상'으로도 다가온다. 인간의 미완성과 상처, 이를 견디는 존재의 존엄을 전하고자 한 황 화백의 간절함이 작품 곳곳에 담겼다.

여수에서 태어나 현재 조선대 미술대학 겸임교수로 활동하고 있는 황 화백은 그간 화가이자 피아니스트, 서예가로서 서화락(書畵樂)과 삼도(三道)를 닦아온 예인이다. 70여년 인생이 고스란히 응축된 이번 전시는 한국 현대미술에서 보기 드문 묵직한 미학적 성과를 확인하는 자리인 셈이다. **박찬 기자** chan.park@jnilbo.com



23~24일 광주광역시 동구 민들레소극장에서 열리는 극단 토박이의 창작 연극 '오월 휴먼시리즈 - 광천동 청년 용준씨' 공연 모습. **극단 토박이 제공**

광주 민주항쟁 역사 '청년 박용준'으로 조명하다

극단 토박이 '오월휴먼시리즈' 23~24일 동구 민들레소극장서

극단 토박이는 제45주년 5·18민주항쟁 기념공연으로 1980년 5월, 투사회보를 필경했던 스물다섯살 청년 박용준의 이야기를 담은 창작 연극 '오월휴먼시리즈 - 광천동 청년 용준씨'를 23~24일 광주광역시 동구 민들레소극장 무대에 올린다.

이 작품은 오월휴먼시리즈 첫 번째 공연으로 5·18민주항쟁 당시 투사회보를 필경했던 스물다섯 고아 청년의 이야기를 다룬다. 80년 오월 광주를 두고 모든 언론이 불순분자들의 소요사태라고 거짓 보도할 때, 박용준은 뾰족한 쇠철필로 투사회보에 당시의 참혹한 역사를 또렷이 새겨 놓았다. 수천 장의 투사회보를 썼던 그의 손은 살갗이 벗겨지고 통통 부어 있었지만, 항쟁 최후의 날인 5월27일 총을 들고 자신을 진심으로 보듬어 안아준 광천동 형들과 죽음을 향해 전진했다.

작품에서 박용준은 불운한 운명에 좌절하지 않고 삶을 개척해 앞으로 나아가며 푸르른 세상을 꿈꾼다. 관객들은 그 꿈을

이끌고 함께 했던 광천동 사람들의 순결성과 투사회보가 후세대에 간절히 전하고자 했던 숭고한 인간애를 되짚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작품을 통해 주인공의 내면을 드러내는 분신과 투사회보 1호에서 10호가 만들어지는 과정을 다양한 오브제를 활용해 생생하게 그려낼 예정이다.

또 다른 '나'인 분신을 통해 주인공 내면에 잠재된 상처, 불신, 갈등, 바람, 희망 등 감춰진 심리와 스물다섯의 청년이 마지막까지 총을 들고 항쟁할 수 있었던 그날의 원동력을 조명한다.

특히 인형, 가면, 움직임, 미니어처, 상징화된 사물과 소리 등 다양한 오브제를 활용해 구현된 당시 상황을 지켜보며 관객들은 더욱 선명하고 입체적으로 드러난 광주정신을 나누고 기억하게 된다.

공연 입장권은 성인은 1만5000원, 청소년 및 단체(10인 이상)는 1만원이며 전화나 문자, 카카오톡, 구글폼, 현장예매 등을 통해 구매할 수 있다. 예매 관련 문의는 062-222-6280 또는 010-3828-6280로 하면 된다. **박찬 기자**

ACC 레지던시 프로젝트, 세계 최대 미디어 아트 축제서 선포

'국제전자예술심포지엄' 참여 23~29일 서울 예술의전당서 ACC 창제작 프로젝트 3점 전시

세계 최대 규모의 미디어 아트 학술대회이자 축제인 '제30회 국제전자예술심포지엄(ISEA2025)'이 오는 23~29일 열리는 가운데 국립아시아문화전당(ACC)은 '2024 ACC 크리에이터스 레지던시' 창제작 프로젝트 결과물을 서울 예술의전당에서 선보인다.

19일 ACC에 따르면 '국제전자예술심포지엄'은 문화·예술·과학·기술이 융합된 세계 최고 권위의 국제행사로, 최신 전자예술 및 뉴미디어 아트의 흐름을 조망할 수 있는 학술대회다.

이번 심포지엄은 아트센터나비미술관, 서울대 문화예술원, 예술의전당이 주최·주관하며, ACC를 비롯해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예술경영지원센터, 서울문화재단, 일렉트라 몬트리올 등이 협력기관으로 참여한다.

올해 행사는 '동동(幢幢): 크리에이터스 유니버스'라는 주제로 전통의 재해석과 인간-기술 간 진화를 통해 신인류와 미래 도시 등 새로운 세계의 가치를 탐색한다. 'ISEA2025 아트 프로그램' 전시에서는 공모를 통해 선정된 39점과 함께 국내외 기관 초청작 79점을 포함해 총 118점의 작품이 소개될 예정이다.

특히 ACC는 지난해 열린 'ACC 크리에이터스 레지던시'에서 완성된 프로젝트 3점을 이번 전시에서 선보인다. 소개될

작품은 △한국팀 '교각들'의 인터랙션 프로젝트 '미소녀는 수육(受肉)하지 않는다' △대만팀 '신피지카'의 혼합현실 설치작 '인공지능·크리처·멀티버스' △홍콩팀 '스페이스 앤드'의 혼합현실 프로젝트 '안녕, 월드 홈!' 등이다.

한편 ACC는 2015년 개관 이후 10년째 '크리에이터스 레지던시'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며, 기술과 예술의 융합을 통해 지속 가능한 창제작 생태계를 구축하는 데 앞장서고 있다.

김상욱 ACC 전당장은 "세계적인 전자예술 융합 축제에서 ACC 창제작 프로젝트를 선보일 수 있어 기쁘다"며 "이번 전시는 전 세계에 ACC의 창제작 플랫폼으로서의 비전과 가능성을 공유하는 뜻깊은 자리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박찬 기자**

광주시립발레단 대표 공연 '코펠리아' 서울 무대 오른다

제15회 대한민국발레축제 초청 31일 예술의전당 CJ 토월극장

광주시립발레단의 대표 공연으로 알려진 '코펠리아'가 서울 무대에 오른다. 광주시립발레단은 오는 31일 오후 2시와 7시 두 차례 걸쳐 서울 예술의전당 CJ 토월극장에서 2025 제15회 대한민국발레축제 초청 특별 기획공연 '코펠리아'를 선보인다.

지난해 광주시립발레단 제138회 정기공연으로 광주시민들을 만났던 '코

펠리아'는 단원들의 연기력과 춤의 다양성, 뛰어난 음악을 고루 갖춘 무대로 사랑받았다. "국내에서 전막발레로 만나기 힘든 '코펠리아'를 성공적으로 무대에 올렸다"라는 평단의 찬사로 대한민국발레축제에 초청 받은 것으로 전해진다.

19세기 낭만발레 걸작 중 희극 발레의 대표작으로 알려진 동명의 원작으로 연금술을 즐기는 괴짜과학자 '코펠리우스'가 만든 인형인 '코펠리아'를 마을 사람들이 살아있는 사람으로 착각하면서 일어나는 유쾌한 이야기를

그린다. 작품에서는 아기자기한 프랑스 발레의 묘미를 느낄 수 있으며, 뛰어난 음악과 다채로운 춤, 화려한 의상과 장치, 연극적인 이야기 전개와 19세기의 유행했던 자동인형에 대한 당대 사람들의 로망을 엿볼 수 있다.

특히 발레의 동작 하나하나가 연상될 만큼 혼연일체를 이루는 아름다운 음악으로 유명해 무용수에게 고도의 연기력을 요구하는 작품으로도 알려졌다. 코펠리우스와 스와닐다, 프란츠의 마임 장면은 관객들의 흥미와 호기심을 자극할 전망이다. **박찬 기자**



@jnilbo
진일보 인스타그램

#호남대표미디어

#진일보

#전남일보_뉴스서비스

